

日, SW도 특허권 인정된다

일본 특허청은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물질특허와 같은 특허권을 인정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했다.

특허청은 발표한 특허심사기준을 통해 콤팩트디스크(CD) 등 유형의 형태로 담기지 않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특허권을 폭넓게 인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소프트웨어를 통신선을 통해 전송판매하는 경우 특허권자가 이를 제지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소프트웨어 자체에 대한 특허권을 보

호받을 수 있게 된다.

일본 특허청은 또 정보기술(IT)과 사업기법 등을 포함하는 비즈니스모델(BM) 특허에 대한 심사기준도 함께 발표했다.

이 기준에 따라 사업과 기술 두가지 측면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을 갖춘 사람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정도의 아이디어에는 BM특허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출처 디지털타임즈

日 통산성, 기업도메인명, 선점금지 개정

일본 통산성은 기업이나 상품 이름을 제3자가 인터넷 도메인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부정경쟁 방지법 개정안을 1월 정기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제3자가 특정회사 이름을 전매 목적으로 선점했을 경우 해당기업이 민사상의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전했다.

통산성은 외국인이 일본기업의 이름 등을 인터넷 도메인명으로 선점했을 경우에도 법원의 판결이 적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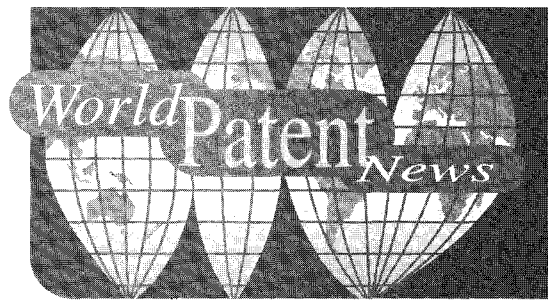
일본의 부정경쟁 방지법은 특정 회사의 상표나 상호를 사용해 상품을 판매할 경우 손해 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으나, 인터넷 도메인명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도 없다.

출처 디지털타임즈

중동, 소프트웨어 표절 온상

중동 지역이 각종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및 표절의 온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연맹(BSA)의 보고서를 인용, 지난해 중동지역의 소프트



웨어 표절로 인해 IT업계가 입은 피해액은 2억4500만달러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78% 증가한 수치다.

BSA에는 마이크로소프트(MS), 노벨, IBM, 로터스 등이 가입해있다.

특히 MS은 이 지역의 소프트웨어 표절로 연간 1억달러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MS의 중동지역 총책임자인 바랍 모하메드는 소프트웨어 표절에 따른 MS의 비용 부담은 중동에서만 1억달러이며, 전 세계적으로는 120억달러에 이를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레바논 등 일부지역에서는 근래 표절행위가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랍에미리트의 경우 소프트웨어 표절률이 4년전의 90% 이상에서 최근 40%대로 감소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4개국에서 유통되는 불법 소프트웨어는 이들 국가의 전체판매량의 80%에 이르고 있다.

중동지역의 소프트웨어 표절률은 1998년의 69%에서 지난해 63%로 약간 감소했다.

미국 선발명주의 포기 움직임

- 특허법 통일화 논의 급진전 예상 -

○ 특허청에 따르면, 2000. 11월 스위스 제네바 WIPO에서 개최된 특허법상설위원회에서 미국특허상표청은 특허법 통일화의 최대 걸림돌이 미국의 선발명주의임을 인정하면서, 미국특허상표청(USPTO)이 주도하여 선발명주의를 지지하는 발명가단체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시작하였고, 향후 1년 정도후에는 선발명주의를 포기하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허법 통일화를 위한 논의가 급속히 진전될 것이 전망되며, 향후 2-3년 후에 특허법 통일화를 위한 조약이 채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 특허청에 따르면 미국특허상표청은 2000. 11월 스위스 제네바 WIPO에서 개최된 특허법상설위원회에서 선발명주의를 고수함으로써 특허법 통일화에 실패하는 것보다는 선발명주의를 포기함으로써 특허법 통일화를 이루는 것이 미국내

발명가를 위해서도 유리함을 인정하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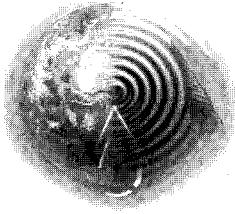
- 선발명주의를 선호하는 미국내 발명가단체들에게 특허법 통일화의 이익을 설명하고 선발명주의 포기의 당위성을 설명하기 시작하였으며,

- 향후 1년 정도 후에는 선발명주의 포기 여부에 대한 미국정부의 구체적인 입장 표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미국이 선발명주의를 포기할 경우 특허법통일화에 있어서의 최대 걸림돌이 해소되어 특허법 통일화를 위한 논의가 급속히 진전될 것이 전망되며,

- 이에 따라 향후 2-3년 후에 특허법 통일화를 위한 조약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 그러나 과거의 예로 보아 미국내의 발명가단체는 강력한 이익단체로서 입법과정에 상당한 영



향력을 미치고 있어 이들이 반대할 경우 미국 특허 상표청이 선발명주의 포기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을 지에 대하여 각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세계 각국의 특허제도를 통일화하기 위한 논의는 지난 1986년부터 시작 되었으나 1994년 미국이 선발명주의를 고수하여 특허제도 통일화에 대한 논의 자체가 무산된 바 있으며
 - 그 후 WIPO는 선발명주의 등 특허 實體에 관한 논의를 중단하고 특허 節次에 관한 통일화 논의를 시작하여,
 - 지난 5월 「특허법조약 채택을 위한 외교회의」에서 국가별 특허출원 절차를 통일화하기 위한 특허법조약(Patent Law Treaty, PLT)을 채택한 바 있으며,
 - 2000. 11월부터는 특허성 판단, 명세서 기재 요건, 청구항 작성 등 특허 실체에 관한 통일화를 위하여 특허법상설위원회(Standing Committee of the Law of Patents, SCP)를 개최, 이를 논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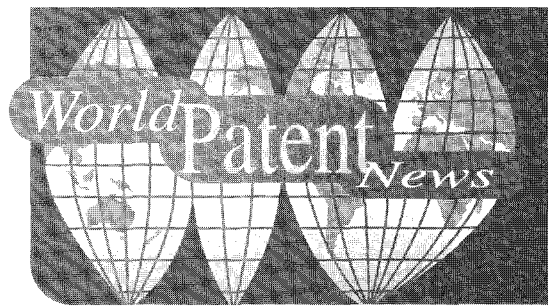
■ 선발명주의와 선출원주의

- 先出願主義(first-to-file system)는 동일한 발명이 여러 개 출원 되었을 경우 먼저 출원 한 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이며,
- 先發明主義(first-to-invent system)는 출원일과는 관계없이 먼저 발명 한 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임
- 미국을 제외한 세계각국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선발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는 특허가 미국에서는 거절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 미국의 선발명주의는 특허법 제도의 국제적 통일

화를 이루는데 있어서 최대의 걸림돌로 인식되어 왔음

특허법통일화 논의 이력

- 1986. 6. 신규성의제기간(grace period)을 국제적으로 통일하자는 미국의 제안이 특허제도 전반의 통일화 논의로 확대 되어 파리협약 보완차원에서 특허법통일화(harmonization)가 추진됨
- 1986-1990 8차에 걸친 전문가회의를 통해 기본안(Basic Proposal) 확정
 - 미국의 선출원주의 채택을 전제
- 1991. 6. 외교회의의 제1부 개최(네덜란드, 헤이그)
- 1992. 9. 파리동맹총회에서 외교회의의 제2부 개최 일자 결정 (1993. 7. 12.~30)
- 1993. 4. 미국이 외교회의의 제2부 연기 요청
 - 파리동맹 임시총회에서 외교회의의 제2부 연기 결정
- 1994. 1. 미국 상무부장관(Ronald Brown) 선발명주의의 고수입장 천명
- 1994. 10. 파리동맹총회에서 Patent Law Treaty (PLT)로 개칭 결정
- 1995. 5. WIPO가 외교회의의 준비협의회의 소집
- 1995. 9. 파리동맹 총회 및 WIPO 총회에서 외교회의의 준비협의회의의 건의 수용
- 1995.12.~1997.12. 특허법조약에 대한 제1차~제5차 전문가 회의 개최
- 1998.6.~1999.9. 제1차(1,2부)~제3차 특허법조약상설위원회(SCP) 개최
- 2000.5. 11.~ 6.2. 특허법조약 채택을 위한 외교회의의 개최 (2000. 6. 1. 특허법조약 채택)



특허전략으로 전문가 직결

경영 및 정보기술(IT), 법률의 종합적 조달 연구 기업인 「Business Information Tehnology Japan (약칭 BIT Japan)」과 노무라 종합연구소 등 지적재산권의 평가연구집단인 Patent·Science 연구회가 중심이 되어, 국내외의 변리사 사무소, 변호사 사무소 등과 결합해, 일본 최초의 「Patent·Science(특허과학)협회」를 설립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BIT Japan을 중심으로 2001년 초에 조속히 「Patent·Science협회」준비실을 개설해, 국내외의 기업의 지원과 참가를 요구할 계획이다. 준비실은 당장 Bit Japan내에 설치한다. 빠르면 05년에도 실현이 예상되는 세계 특허와 재무회계에서의 지적재산권 보고서의 문체에 국내외의 전문가가 집결하게 된다. 종합적인 지적재산권 대응의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세계조달에 기초한 22세기의 특허전력의 제공을 지향한다. 현재, 일부에서 일본기업의 지적재산권 담당부서의 설립과 사내 체제의 확립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고 하지만, 일본기업은 충분한 노하우도 없고 전문가도 적다.또한, 지금까지는 어느 쪽인가 하면, 특허를 취득하면 권리로서 보호되어 비즈니스를 일정 기간 독점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특허를 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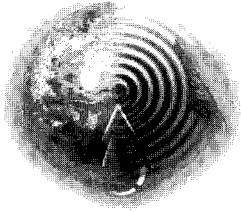
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져왔다. 비즈니스 모델이 특허로서 인정되고 있는 가운데, 특허 비즈니스 자체가 크게 변할 것이 예상된다. 특허에 관해서 발명자의 이익 뿐 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진보를 생각해서 보다 공개적으로 취급하는 것이 요구되어지고 있다.그래서,BIT Japan과 Patent·Science 연구회의 네트워크를 축으로 국내외의 전문가에 의한 협회를 설립한다. BIT Japan은 벌써 아시아 전역에서 지적 재산권 컨설팅을 전개하고 있는 미국 사무트만 변호사 사무소와 제휴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연결하는 인터넷 선진국인 한국의 조달에 관해서도 서울 테크노사와 제휴해 함께 한국정부 계열 기관인 「한국 특허기술정보 센터」와 조사에 관해서 제휴하고 있다. 더욱이, 이 기업은 한국의 워드프로세서 소프트웨어 회사인 한글과 소프트와 EC비즈니스에 관한 포괄사업제휴를 하고 있다. 국내외의 전문가 약 700인을 넘는 경영·IT·법률의 종합적인 지적 재산권 조사 및 연구집단을 형성해 새로운 지적재산권의 평가법의 개발도 추진할 방침이다.

출처 일간공업신

세계특허를 지향한 미국의 특허협력조약의 개정을 WIPO에 요구

미국 정부가 국제적으로 통용될 세계특허를 2005년 이후 창설하자고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특허협력 조약의 전면개정을 제안한 것이 밝혀졌다. 2국간 이상에 걸친 특허를 취득하기 위한 국제출원

절차를 효율화하여 미래에는 한 나라에서 특허를 취득하면 세계특허로 인정하는 구상을 내놓았다. 이 제안은 특허의 출원부터 취득까지의 번잡한 절차의 간소화, 비용삭감에 유효하다고 보고, WIPO는 제네바



에서 열리는 총회에 작업부회를 설치하여 미국의 제안을 구체화한다. 특허협력조약은 복수의 국가에서 특허를 취득하는 경우의 국제출원절차를 결정한 것이다. 한 나라의 특허당국에 대해 권리보호를 요구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출원한다. 문헌 등을 점검하여 특허의 가능성을 조사하는 국제조사(20개월)이나 그 후의 전문가에 의한 예비심사(10개월)을 거쳐 지정된 각 국에서 특허취득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80%이상의 출원자가 국제출원으로부터 각 국에서 특허취득절차를 진행하는지 30개월의 기간을 완전히 활용하여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조

사로부터 예비조사로 이행할 때의 번잡한 절차에 불만이 높다. 미국 정부의 제안은 단계적으로 이들 절차를 대폭 간소화, 효율화하려는 것이다. 먼저, 제일 단계로서 2005년까지 조사에서 예비조사로의 흐름을 일체화하여 원칙으로 모든 출원에 예비조사까지 실시하여 비용의 경감을 실현한다. 그 후 제 2단계는 국제출원과 각 국에의 국내출원의 구별 없이 특허당국의 지역통합도 추진한다. 지정국 제도도 폐지하고, 한 나라에 출원하면 조약 가맹 모든 국가에출원한 것으로 간주하여 2005년 이후 세계특허 실현을 향하도록 제한하였다.

〈해외 과학 기술동향〉

발특2001-1

